

I. 國內外 經濟 概觀

競爭力 10% 向上 方案의 影響과 課題

- (影響)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생산성 제고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
- (課題) 정부는 시장 자율 기능의 확대와 경쟁 촉진과 같은 경쟁력 향상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하고,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생산성 향상, 경비 절감, 기업 경영 개선 전략을 마련

기업 비용 부담의 감소와 정부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

- (影響) 기업의 비용 부담 감소와 정부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 발생
 - 국산 자본재 외화 대출 확대와 상업 차관 허용, 공장 용지 분양가 하락 등으로 기업 비용 절감
 - 공공 부문의 인력 축소와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정부 생산성 제고
 - 경제 규제 of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의 전환 등에 의해 기업 경영 활동의 애로 요인 경감
 - 향후 기업 정책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정부, 기업의 경비 절감 노력에 의해 전반적인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공공 부문의 혁신책과 조치면에서 미비

- (課題) 공공 부문의 혁신책과 근본적인 조치면에서 미비함
 - 정부 생산성 제고 방안 조치는 구조 개혁면에서 크게 미흡하고 제한적임
 - 고비용 구조 해소에 대한 행정력에 의한 통제 조치는 지양되어야 함
 - 경상수지 적자 개선 대책이 크게 미비함
 - 임금, 노사 문제에 대한 소극적 조치 등에서 정치적 한계성을 드러냄
 - (정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을 통한 시장 자율 기능의 확대와 경쟁 촉진과 같은

경쟁력 향상의 보다 본질적인 측면의 조치가 필요

경쟁력 향상의 보다 본질적인 측면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업)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생산성 향상, 경비 절감, 기업 경영 개선 전략을 마련해야 함(민 주 흥)

<경쟁력 강화 주요 세부 내용>

| | 분야 | 현행 | 개선 |
|------|------------|--|---|
| 공공분야 | 정부공사 | 10%만 턴키 방식 | · 턴키 방식 대폭 확대 · 민자 유치 사업 턴키 방식 원칙 |
| | 공공요금 | 114 무료 | · 114 유료화, 국제·시외전화료 인하 |
| | 산업공단 | 수출,서부,중부,동남,서남 등 5개 | · 전국 조직으로 단일화 · 열병합 발전소 민영화 |
| | 전력사업 | 한전 독점 | · 원전 제외 민간 허용 · 한전에 전력 판매 |
| | 공기업감사 | 행정기관 감사 | · 회부 감사 도입, 회계 규정 폐지 |
| 금융분야 | 우정업무 | 상여금 동일 | · 경영평가별 기관·개인 상여금 차등 |
| | 보험대출 | 계약자 원칙 | · 계약자외에도 개방(개입·법인) |
| | 공공자금 | 금리 입찰 가능 | · 연기금 등 금리 입찰 금지 |
| | 수출선수금 | 수출 실적 15% | · 수출 실적 20% |
| 공장용지 | 연지급수입기간 | 중기 90~180일, 대기 60~18일 | · 중기·대기업 모두 210일까지 30일 연장 |
| | 국산자본재외화대출 | 중기 100%(대기업 구매 70%) | · 대기업간 구매에도 허용 · 국산 자본재 구입시 대기업 차관허용 |
| 기업경영 | 부담금 | 7개 부담금 부담 | · 모두 면제 |
| | 공단관리비 | 분양가 2% | · 폐지 |
| | 진기설치비 | 한전 50% | · 한전 100% 부담 |
| | 하수처리장 | 지자체 50~70% 보조 | · 국고 지원 |
| | 도로/녹지비율 | 도로 8~10% 이상, 녹지 5~13% | · 대폭 비율 인하 조정 |
| | 미분양공장용지 | 대불·북평 단지 김천·구성 단지 | · 5년간 무이자 할부 판매 · 1년간 분양가 30% 인하 |
| | 수도권공장입지증선 | 점단 업종 25% 가능 | · 50% 이내로 확대 · 신·개·증축 허용 |
| 기업경영 | 공장등록폐지의무고용 | 건축면적 200m ² (약 60평 이내) 27종 법정 의무 고용 | · 건축면적 500m ² (약 150평) 이내 · 원칙 폐지, 최소화(장애인, 유공자 제외) |
| | 중소의단체수의계약 | 현행 289개 품목 | · 97년 10% 감축 경쟁 촉진 |
| | 경제규제 | 사전 규제 | · 사후 규제 |
| 물류 | 창투지원 | 대기업 지분제한(10대 그룹 20%) 진화 사채 인수 한도(주식인수규모의 200%) 지방투자의무비율(투자액 50%) | · 소유 제한 폐지 · 한도 폐지 · 지방투자 의무 폐지 |
| | 화물운송사업 | 화물차 운수업 면허제 | · 등록제도 제한 |
| 물류 | 화물운수업종 | 노선, 전국, 특수, 용달, 일반, 컨테이너 등 6개 | · 개별, 용달, 종합 3개로 통합 |
| | 공차율 | 현행 화물차 34% | · 지속 감소 추진 |

海外 景氣 概觀

中國 景氣 概觀

- (中國 經濟 動向) 96년 상반기 동안 중국경제는 95년에 비하여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었지만 경제성장은 침체되었음
- (中國 經濟 展望) 수출의 증가 추세로의 反轉과 긴축정책의 완화로 96년 하반기 경제 상황은 상반기에 비하여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경제는 96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감소되었지만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악화되었음

96년 상반기 동안 8.2% 감소하였던 수출은 8월에 12.8%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中國 經濟 動向) 96년 전반적인 거시 경제지표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에 비하여 침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출은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물가상승률의 하락과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악화
 - 올 여름 기간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6년도 중국 정부의 최저성장목표인 8%를 밑도는 7%대 까지 하락하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음. 95년 성장률은 10.2%였음
 - 공식 통계에 의한 전국 실업률은 3.8%이지만 도시지역은 10%,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은 8월 동안 5.8%로 발표되었으나 세계은행의 일부 관계자들은 8~10%로 추정하고 있음. 95년 물가상승률은 17.1%였음
 - 8월 동안 수출은 증가세로 반전
 - 95년 11월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국의 수출은 96년 상반기 동안 전년대비 8.2% 감소하였음. 참고로 중국은 90년대 동안 두자리 숫자의 수출 증가율을 지속하여 왔음 (1993년은 약 8%)
 - 8월 동안 수출의 감소 추세는 급격히 반전되어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음
 - 중국은 95년부터 수출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보조금 및 유인정책을 폐지하여 왔으나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수출금융의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함

- 8월의 수출 증가세 반전은 중국 원화의 절상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96년 및 97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9~10%, 물가상승률은 8~9% 선으로 전망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

- (中國 經濟 展望) 단기적으로 96년 하반기 동안 중국경제는 상반기에 비하여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임
 - 단기 전망으로 96년 하반기에는 호조 전망
 -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중국 정책당국은 긴축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음
 - 해외 경제예측기관들은 96년 및 97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10%, 물가상승률은 8~9%선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결국 단기적인 기시경제 총량의 동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전형적인 대체관계(trade-off)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달려 있음
 -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확충, 국유기업의 효율성 제고, 에너지 및 식량생산의 안정적인 공급 등의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함 (이 장 규)

<세계 경제 실질 성장률>

| | 1993 | 1994 | 1995 | 1996 | | 1997 | | 교역 비중 (%) |
|--------|-------|-------|------|------|-----|------|------|-----------|
| | | | | WEFA | DRI | IMF | WEFA | |
| 진세계 | 1.6 | 2.7 | 2.8 | 3.3 | 3.2 | 4.3 | 3.9 | 100.0 |
| 선진국 | 0.8 | 2.7 | 2.1 | 2.2 | 2.6 | 2.6 | 2.4 | 49.9 |
| 아시아신흥국 | 6.5 | 7.6 | 7.7 | 7.2 | 6.0 | 6.7 | 7.1 | 14.3 |
| 중국 | 13.4 | 11.8 | 10.2 | 9.3 | - | - | 9.4 | 7.3 |
| 중남미 | 3.5 | 5.1 | 0.4 | 3.0 | 4.6 | - | 4.9 | 5.9 |
| 구소련·동구 | -11.6 | -15.2 | -4.0 | 0.3 | - | 3.8 | 4.2 | 3.3 |

자료 :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96년 2/4분기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6.5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8

주 : 교역 비중은 95년 국내 총수출에 대한 각 지역의 수출 비중임

II. 經濟 指標 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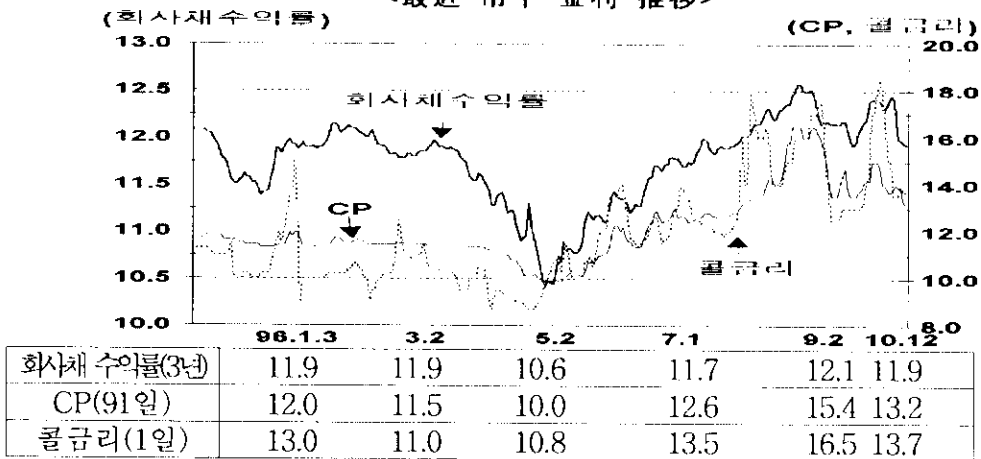
1. 金利, 下向 安定勢 展望

- (現況) 회사채 수익률은 5월초부터 상승세로 반전하여 10월 12일 현재 11.9% 기록
- (原因) 최근 시중 금리 상승의 주요인으로는 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와 통화 관리 불안임
- (展望) 96년 4/4분기부터 시중 금리는 하향 안정되어, 97년 상반기까지 금리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5월초부터 시중 금리 상승 추세로 전환

- (現況) 회사채 수익률은 5월 초부터 상승세로 반전하여 10월 5일에 12.0% 기록
 - 시중 금리는 96년 4월 26일 10.4%로 사상 최저치 기록한 후 5월 이후 반등을 시작하여, 8월 22일에는 12.6%로 연중 최고치 기록
 - 그후 상승세가 다소 약화되어 10월 12일 현재 11.9%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반기 평균 금리 수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

<最近 市中 金利 推移>



- (原因) 최근 시중 금리 상승의 주요인으로는 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와 통화 관리 불안임
 - 경기 둔화 지속에 따라 기업의 운전 자금 수요 증가로 기업들의 내부 자금 사정이 악화됨

금리 상승은 기업
의 자금 수요 증
가, 통화 관리 불
안 등에 기인

-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CP 발행을 확대함에 따라 중단기 금리인 CP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기 금리인 회사채 금리의 동반 상승을 초래함
- 총통화 증가율이 9월 현재 평잔 기준으로 17.4%를 기록, 연간 목표치인 15.5%를 훨씬 초과하자 통화 당국의 통화 긴축이 우려되어 자금 가수요 증가

4/4분기부터 시중 금
리는 11.7~12.0% 안
팍으로 하향 안정

○ (展望) 4/4분기부터 시중 금리는 안정세로 돌아
설 것으로 보임

- 연말로 갈수록 기업들은 생산 감축과 재고 조정으로 운신 자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통화 당국의 신축적인 통화 관리로 통화 긴축 우려가 불식됨에 따라 자금 가수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 광의의 유동성 지표인 MCT(M2+CD+금전신탁)를 활용함으로써 통화 공급 불안정 완화
- 4/4분기 통화 증가율을 18.0% 선에서 운용하여 2/4분기 5.7조 원, 3/4분기 8.8조 원보다 대폭 증가한 9.3조 원 가량의 통화 공급 가능

<통화 증가율 추이>

| | 95.12 | 96. 3 | 96. 6 | 96. 7 | 96. 8 | 96.9 |
|-----|-------|-------|-------|-------|-------|------|
| M2 | 13.7 | 14.6 | 16.2 | 17.1 | 17.4 | 17.5 |
| MCT | 21.6 | 22.3 | 22.2 | 22.2 | 21.8 | - |

주 : 평잔 기준임

- 정부가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금리차에 의해 해외 자본이 급속히 유입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상업 차관 허용· 해외 자금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 지급 준비율도 인하할 계획
- 종합하면, 4/4분기 시중 금리는 11.7%~12.0%대에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안정세는 97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김도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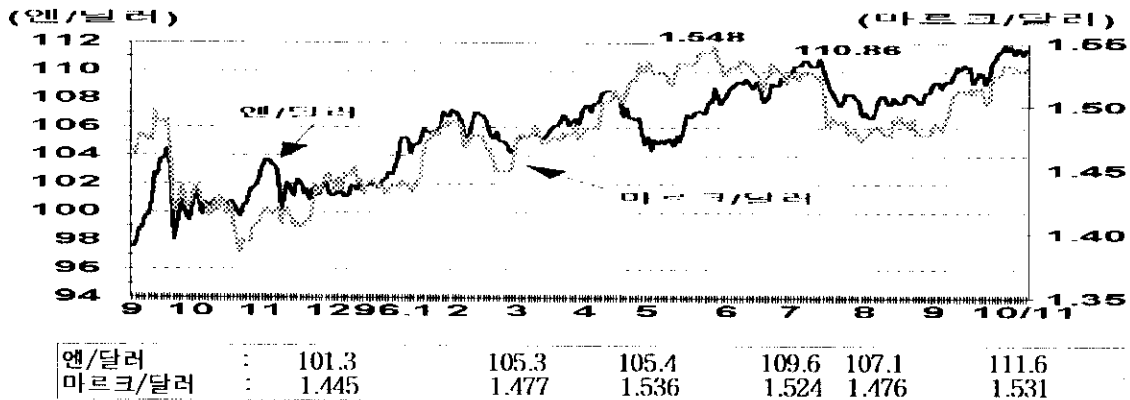
2. 달러貨 價値, 강세 지속

- (動向) 엔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가 10월초에 장중 한때 32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강세를 나타냄
- (原因) 비·일간 금리차 지속, 유럽통화동맹(EMU) 출범 가능성 증가, 선진국들의 달러화 강세 지지 표명 등이 달러화 강세의 主要因임
- (展望)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향후 1~2개월 동안은 110~112엔대에서 등락하며 강세를 보이다가 96년말이나 97년초부터 완만한 약세로 돌아설 듯하며, 마르크화에 대해서는 97년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달러화, 엔화에 대해 32개월만에 최고치 나타내며 강세 지속

- (動向) 7월초 이후 강세가 둔화되었던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가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음
 -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는 10월초 한때 뉴욕 시장에서 112.10엔을 기록하여 32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음
 - 5월초 이후 약세를 보이며 1.47마르크대까지 하락하였던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 또한 상승하여 1.53마르크대에 이르렀음

<최근의 엔/달러와 마르크/달러 換率 推移>



선진국들의 달러화 강세 지지 표명이 최근 달러화 강세의 주요 원인

- (原因) 미국의 일본 및 독일에 대한 상대적 고금리 상태 지속, G7 재무 장관 회담에서의 달러화 강세 지지 등이 최근 달러화 강세의 主要因임
 - 일본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사상 최저 수준

- 인 금리가 상승하지 않고 있어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상대적 고금리 상태 지속
- 독일 또한 8월말에 주요 정책 금리 중 하나인 레포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미국과의 금리차가 커지고 있음
- 9월말에 있었던 G7 재무 장관 회담에서 달러화 강세 지지를 표명하자 달러화 매입이 급증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96년말 이후에나 약세를 나타낼 듯

○ (展望) 엔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는 향후 1~2개월간 110~112엔대에서 등락하다가 96년말이나 97년초부터 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경기가 1/4분기의 급격한 회복 후 다소 둔화됨에 따라 저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어서 현재 약 4%에 이르는 미국과의 장기 금리차가 향후 1~2개월은 지속될 듯
- 그러나 미국 자동차 업계 등 주요 수출 업계에서 달러화의 급격한 절상은 반대함에 따라 달러화의 추가적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음
- 96년말 또는 97년초부터 미일간의 금리 격차 축소, 엔저 효과의 가시화로 인한 일본 경상수지 흑자의 재확대 등으로 달러화는 완만한 약세가 예상
- 수출 회복, 저금리에 따른 민간 소비 및 투자 회복세 지속 등으로 일본 경기가 민간 주도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상 최저 수준에 있는 일본 금리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임
- 엔저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일본의 수출이 회복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재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완전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97년에도 저금리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이어서, 달러화는 마르크화에 대해서 97년에도 강세 기조를 떨 것으로 예상됨 (김재철)

달러貨는 마르크화에 대해 강세를 유지할 듯